

제105-7차 임원회 및 증경 총회장 전체 회의

제105회기 마지막 정리; 제106회 총회 절차 발송준비 완료



제105회기 제7차 임원회를 8월 26일(목) 오전 11시, 교단본부에서 열고 실질적인 제105회기 중무식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제106회 총회 절차발송 준비를 마쳤다. 회의에 앞선 예배는 증경총회장단과 함께하였다. 이날 예배는 서기 신연식목사(대배라교회)가 인도하고 증경총회장 윤서구목사(임마누엘교회)가 기도하였다.

인도자가 출23:1-3절을 봉독하였으며, 총회장 이경근목사(명안교회)

는 “공의로운 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사무총장 박만진목사(덕소제일교회)가 교단소식과 총회준비 현황을 보고한 후에 증경총회장 김용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끝이어서 부서기 이다윗 목사의 기도로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계 박병욱장로의 회계 보고는 유인물로 받기로 했으며 사무총장 박만진목사의 총회 준비보고를 통하여 코로나 키트와 성찬 키트 100명분 준비되었으며 목사 10년 장로 5년이면

총대가 아니어도 총회 참석 할 수 있도록 초청한 일과 총회 절차발송과 진행 과정을 보고 받았다.

결의된 중요안건으로 총회 당일 임원회는 없으며, 모든 준비는 서기단과 사무총장에게 위임하고, 총회는 하루 일정으로 갖고 총회장 취임식까지 마치기로 하였다.

참석자 : 이경근목사, 신연식목사, 이다윗목사, 진상운목사, 박병욱장로 김재호 장로
배석자 : 박만진 목사(사무총장)

메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총회장 이경근 목사 (명안교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도 우주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순순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하강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으며, 로마서 14장 18절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칭찬 듣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절실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요리문답에서 가르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나만의 디자인이든 유명 한 배상민이라 하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세계 3대 패션 스쿨 중 하나인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을 1등으로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동양인 최초, 최연소 교수로 임용된 사장이었습니다.

27세에 교수가 됐고 30세에 디자인 회사를 차리고 잘 나가는 산업디자인사

로 그는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코카콜라, 3M, 코닥 등 세계적인 기업의 모든 디자인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알려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자문자답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간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눔의 삶을 살아라. 너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는데 이제부터 나누어라.”

그래서 화려한 13년간의 뉴욕생활을 정리하고 2005년에 귀국하여 카이스트 강단에 섭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3D 디자인입니다. 3D 디자인이란 꿈꾸는 Dream, 꿈을 삶으로 디자인하는 Design, 세상과 함께 나누며 사는 Donate) 이 같은 삶을 살기로 하고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과 디자인도 기부하고, 제품을 통해 얻어 들인 그 수익금을 저소득층 어린이들 돕는데 사용하고, 또 아프리카까지 가서 학생들과 함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칭찬 듣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절실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요리문답에서 가르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나만의 디자인이든 유명한 배상민이라 하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세계 3대 패션 스쿨 중 하나인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을 1등으로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동양인 최초, 최연소 교수로 임용된 사장이었습니다.

27세에 교수가 됐고 30세에 디자인 회사를 차리고 잘 나가는 산업디자인사

제106회 총회임원 전형위원회 소위원회

박형진목사 총회장으로, 목사부총회장은 증경총회장 중에서;



제106회 총회의 임원전형의 대임을 맡은 제105회기 임원전형위원회(위원장 김정용목사)는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임원구성의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12일(목) 교단본부에서 모인 소위원회에 앞선 개회예배는 위원회 서기 강대민목사(성현교회)가 인도하였다. 가 있었다.

전북노회장 김정호목사(한소망교회)가 기도한 후에 위원장 김정용목사(중울산교회)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전15:58)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증경총회장 류현욱목사(동명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끝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이미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전형에서 총회장에 현 부총회장 박형진 목사(경서노회)가 자동 추대됨을 확인하고, 부총회장은 증경총회장단에 전권 위임하여 증경총회장 중에서 헌분을 추대하도록 하고, 장로 부총회장은 박병욱장로(경기노회)로, 부서기 진상운목사(전중노회), 회의록서기 김중봉목사(전북동노회), 회계 조성운장로(전북노회)를 각각 잠정 결정하였으며, 서기, 회의록부서기, 부회계는 8월 24일 접수 마감일까지 보류하고 각 노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독려했다.

참석자 및 배석자 : 김정용목사, 강대민목사, 류현욱목사, 김정호목사, 박만진 목사

증경 총회장단 전체회의 소집하다.

제106회 총회 부총회장 및 임원 전형대상자 추대 논의

총회 증경총회장단(회장 황호관 목사는)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종료 교단본부 회의실에서 가졌다. 회의에 앞선 예배는 임원회와 더불어 드린 후에 총회장실에서 회무를 진행하였다.

회의에 앞서 윤서구목사(임마누엘교회)가 기도하였다. 증경총회장이자 임원전형위원회 위원장 김정용목사(중울산교회)는 모두 발언을 통하여 목사 부총회장을 증경총회장 중에서 추대하게 된 경유를 설명하였다.

총회의 회기가 더해가면서 증경총회장의 수는 증가하고 총대의 고령화와 함께 따른 총회의 인제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을 강조하였다.

회원들이 만장일치 호선에 의하여 류현욱목사(인산동명교회)를 전형위원회에 추천하기로 결의하고 남은 절차는 총회 임원전형 위원회의 결의에 승복하기로 하고 황호관 목사(꿈꾸는교회)가 기도함으로 회무를 마쳤다.

참석자 : 김용진, 황호관, 임종학, 류현욱, 강대민, 윤서구, 배석 : 박만진 사무총장

총회 천서 위원회 노회장의 천서 검토

제106회 총회 총대 90명(자동총대 14명 포함)으로 최종확정

제106회 총회를 앞두고 각 노회에서 제출한 총대 추천서를 검토하여 확정하는 천서위원회가 지난 8월 9일(월) 오전 11시 교단본부에서 모였다.

천서위원회는 임원회로부터 위임 받아 각 노회장이 발부한 제106회 총회 총대 추천서를 검토 확인하는 일과 미비한 서류의 보충, 세례헌금 시행 여부를 심의한 끝에 목사 총대 38명 장로 총대 38명 76명과 자동총대(증경총회장 8명, 장로부총회장 6명) 14명 포함 총 90명의 총대를 확정하여 총회 절차를 발송하기로 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개혁총회 소집공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개혁교단 산하 모든 노회와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06회 총회를 총회규칙 제7장 31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집공고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장 이경근 목사

- 주제 :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평화로운 총회 (삼상7:14)
- 일시 : 2021년 9월 27일(월) 오전 11시 - 30일(목)까지
- 장소 : 새은혜교회당 (담임 박형진 목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 이노프라자 7층 (010-8424-0688)
- ※ 총대님 섬기시는 교회의 세례인헌금 6월30일까지 납부는 필수입니다.
- ※ 총회상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노회는 회원권의 제한을 받게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규칙 2장6조)
- ※ 목사임직 10년 이상, 장로임직 5년 이상인 모든 분을 총회에 초대합니다. (초청인 : 신임 총회장)



社說

제106회기 교단과 총회경영을 생각하자.

총회 제105회기는 역사의 뒀안길로 총총히 사라져간다. 시간이 평탄치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하나가되어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새로운 회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보낸다. 만사가 그러하듯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는 사뭇 달라지게 되어있다.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중에 총회장이자 교단의 대표자로서 한 회기를 무난하게 이끈 총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합계 산사람들의 몫이고 해가 지난 다음,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을 되찾은 그 즈음에 썬해보기로 함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되고 또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건이 참으로 열악하다 못해 참담한 지경에서 보낸 한 해였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사지가 묶인 형국이었으니 누구든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나 그런 교회는 극소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음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교단적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때이다. 이런 난관의 상황에서도 세례교인 헌금을 감당해준 교회들에게 극진한 감사표현을 표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도적인 입장에서 총회와 교단을 섬기는 인사들의 살 값은 헌신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입예산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노회들이 총회를 섬기는 상회비, 임원들이 헌신의 표로 기여하는 총회발전기금, 그리고 세례교인 헌금이 감소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개체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으니 노회가 영영 열악하다 못해 참담한 지경에서 보낸 한 해였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사지가 묶인 형국이었으니 누구든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중에도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손을 놓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역사였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106회기를 시작할 그 때보다 더욱 심해진 거리두기 4단계에서 임무를 고대하게 되었다. 이제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 2년 가까이 경험해 보았고, 또한 탈도 못 받았지만 백신접종이 상당수진행되어서 집단방역을 기대하는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106회기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았는가하는 기대 중에 출발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 의사봉을 받아드는 총회장이나 임원들은 그 만큼 핑계거리가 줄어들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을 기다리기에 너무 무답답 처지이다. 무너진 재단을 수의에 참석하여 회의비를 수령하는 인사들을 돌아보고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다들 다들, 미확인정보이지만 일만 교회에 주저앉아 버렸고, 30만이 교회를 떠났고 집회참석 숫자로 따지면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어떤 목회자는 이런 와중에도 재정은 줄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고 하

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경서노회는 총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제106회 총회를 유치한 경서노회(노회장 하예성 목사)는 임원을 중심으로 총회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에서 오는 총대를 맞이할 준비에 돌입하였다고 한다. 황호관 목사, 조성영 목사를 고문으로, 위원장에 노회장 하예성 목사, 총괄 김요환목사, 재정위원장 회계 이상복목사를 비롯하여 안내위원장, 영접위원장 등 각기 위촉하는 한편 총대들에게 기증할 기념 타올을 제작하기로 하는 등 불편 없는 총회가 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성찬식을 생각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제미변호사 황혜림 자매의 도움을 받아 개인체를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담당목사의 말을 듣고는 귀를 의심하였다. 총대 외에 모든 목사 장로를 총회에 초청한 부총회장의 속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단의 총회장을 배출하는 교회로서 손색이 없는 교회임을 인정하지

특별기획

제106회 총회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총회장소 새은혜교회 예배당, 총회를 유치한 경서노회를 돌아본다.

제106회 총회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평화로운 총회"라는 안정적인 주제를 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이미 공천위원회에서 상비부서와 상임위원회 공천을 마쳤고, 총회임원전행위원회가 임원전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106회 총회 절차를 제작하여 발송한 것으로 안다.

제106회기 총회장 누구인가? 제106회기 총회장으로서 의사봉을 이어받을 부총회장 박형진 목사는 이미 교단 내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총회개혁공보사의 사장, 부총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부총회장 뿐 아니라 합동위원장, 출판국장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박목사는 부총회장으로서 한 회기 동안 이경근 총회장과 도타운 팀을 이루어 총회운영에 이바지하여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 교단을 평화로운 교단, 발전하

고 확장되어가는 총회로 세워 갈 것으로 기대한다.

새은혜교회 어떤 교회인가? 금번 총회장으로 확정된 새은혜교회는 설립 8주년을 맞이한 아주 젊은 교회이다. 교회의 연륜이 짧아도 젊지만 개체교회 교인들의 평균연령이 낮아서 젊다는 말이다. 실제 태어난 해와 민중의 나이가 다른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러하다. 새은혜교회의 전신인 안산능능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무슨 말인지를 금방 이해할 것이다.

이 교회의 성도들과 박형진 담임목사와의 관계 나이가 평균 20년이 넘는다면 이 교회의 결속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새은혜교회는 철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장점이다. 교회 설립 8주년을 기념하여 집사 4명, 권사 2명을 뽑아 세웠다. 이로써 새로운 부흥과 성장을 계속하는 건강한 교회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코로나 19, 방역거리두기 4단계라는 위중한 사회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활기 넘치는 교회 분위기가 참으로 신선하다.

총회준비는 어찌 되어 가는가? 총회를 앞둔 새은혜교회는 당회원을 중심으로 <제106회 총대 환영단>을 구성하였다. 당회원(재정위원장 김현운장로, 예배위원장(송인기장로) 행사위원장 강창구장로)을 중심으로 하여 남전도회(회장 송영노집사) 여전도회(회장 박숙기권사), 안수집사회(회장 김재현집사), 권사회(회장 이영란권사), 청년회(회장 손채은자매) 등 교회의 모든 조직이 총동원되어 빈틈없는 원팀을 이루었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구체적인 준비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서 일한 총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 확신이 섰다. 김현운장로는 총대와 모든 내빈을 위하여 마스크와 열 측정기는 물론 충분한 손 소독제를 마련하고, 총대들이 오오래 간직할만한 특별 기념품을, 유영대 집사는 개인별 코로나 검사 키트를 기증하였으며, 박용권집사

와 정선아권사, 그리고 김정태, 정유진 집사 부부가 힘을 합쳐 품위 있는 도사리를 준비하고, 다과를 준비하여 다정하게 섬기는 모든 일은 여전도회와 권사회에서, 주차와 안내 봉사는 남전도회와 안수집사회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총회 기간의 모든 예배와 회의를 녹화하고 녹음하는 방송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는 예배위원장 송인기 장로와 방송부장 김성호 형제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전담하기로 하였다.

이 모든 준비에 필요한 재정을 담당자들이 헌신하니 놀랄 수밖에 없다. 기획자가 방문한 시간은 예배당 내부 인테리에 공사 한창 진행 중인 시간이었다. 행사위원장 강창구장로가 공사비 전액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담당목사의 말을 듣고는 귀를 의심하였다. 총대 외에 모든 목사 장로를 총회에 초청한 부총회장의 속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단의 총회장을 배출하는 교회로서 손색이 없는 교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경서노회는 총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제106회 총회를 유치한 경서노회(노회장 하예성 목사)는 임원을 중심으로 총회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에서 오는 총대를 맞이할 준비에 돌입하였다고 한다. 황호관 목사, 조성영 목사를 고문으로, 위원장에 노회장 하예성 목사, 총괄 김요환목사, 재정위원장 회계 이상복목사를 비롯하여 안내위원장, 영접위원장 등 각기 위촉하는 한편 총대들에게 기증할 기념 타올을 제작하기로 하는 등 불편 없는 총회가 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성찬식을 생각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제미변호사 황혜림 자매의 도움을 받아 개인체를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담당목사의 말을 듣고는 귀를 의심하였다. 총대 외에 모든 목사 장로를 총회에 초청한 부총회장의 속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단의 총회장을 배출하는 교회로서 손색이 없는 교회임을 인정하지

건강하게 부흥 성장하는 새은혜교회 임직식

교회설립 8주년 기념; 임직감사에배 집사4명, 권사 2명 세우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건강하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새은혜교회(부총회장, 박형진 목사)는 지난 8월 15일, 교회설립 8주년 기념 집사? 권사 임직감사에배를 드리고 4명의 집사와 2명의 권사를 세워서 새로운 성장의 기틀을 다졌다.

이날 임직감사에배는 담임 박형진 목사가 인도하고, 백승철 목사(새부산노회장), 예전제일교회가 기도하였으며, 천안능능교회 오성원목사가 사무엘하

6:6~11절 말씀을 봉독하고, 새은혜교회 새벽이슬 같은 청년회원들이 "주님다시오실 때까지"를 찬양하여 영광을 돌리고, 총회장 이경근 목사(평안교회)는 [오랜만에같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곧 이어진 임직예식은 당회장 박형진 목사의 집례로 진행되었다.

이날 예식은 총회헌법 예배와 예식 규범에 따른 예식으로서 참석자들과 순서 담당자들로부터 규모 있었다는 후한 평

가를 받았다"고 한다. 특별히 새은혜교회는 이번 임직식을 앞두고 예배당 대청소와 완벽한 코로나 19 방역소독을 마친 것으로 총회준비의 계기로 삼았다고 한다.

이날 임직식의 축하순서의 면면은 증경총회장 황호관 목사(꿈꾸는 교회)의 임직자를 위한 권면을 시작으로 경서노회 노회장 하예성목사(생명공동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 격려사에 증경노회장 오인호목사(장대교회), 증경노회장 최희용목사(샘터교회), 그리고 축사



에는 증경총회장 임종학목사(개신원총장), 증경총회장 류현목사(동명교회), 증경총회장 윤서구목사(임마누엘교회),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덕소제일교회)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예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현장 참석자수를 최소화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여 안전을 기하여 모범을 보였다. * 집사 임직 : 신철규, 민한기, 조국남, 박울권, 권사임직 : 서정희, 정선아

찬양교회 예배당확장 이전 감사 메시지

서울남노회 소속 찬양교회(이다윗 목사) 사무는 긴 공사를 마치고 이전하여 감사예배를 드리고 입당하였다. 찬양교회는 지난 7월 31일, 6주간의 이전공사를 마치고 8월1일 입당하여 새로운 부흥과 성장을 꿈꾸게 되었다.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 공사를 직영함으로 예산을 절약하였다고 한다. 공사를 마친 예배당은 1층(15평)은 카페와 목양실, 지하 1층(95평)은 중앙예배실과

교육관으로 꾸몄다. 담임 이다윗 목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사메시지를 본사에 보내왔다. 공사를 시작하여 완공하기까지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주일 성도들과 나누며, 여러 차례 회의하는 과정이 험겨운 시간 들이었으나 오히려 은혜가 넘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의 놀라운 계획이 이끄셨고, 성도들은

코로나 19로 모일 수 없는 중에도 한바 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였습니다.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계속된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온 성도가 인정하며 고백하게 되기를 간구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전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성도들과 밤을 새워 기도하여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

황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필요할 때 예상 할 수 없는 손길을 통해 채워가심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예배처소의 건물주로부터 어려운 시기에 이전한다고 원망을 들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불신자인 건물주로부터 감사의 인사와 축복



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느덧 이전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전한 새 예배당을 찾아오는 성도들의 고백마다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찬양교회 성전이전을 위해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總 改革公報 창간일: 1984년 10월 1일 등록일: 2012년 8월 27일

서울다-10503호 발행인 이경근 사장 황호관 이사장 이흥년 인쇄인 김갑기

대표전화 : (02)742-3538 http://rpcknews.com 웹하드: RPCK1004/개혁총회

주필 황호관 편집인 박만진 논설위원 김양삼 취재부장 유남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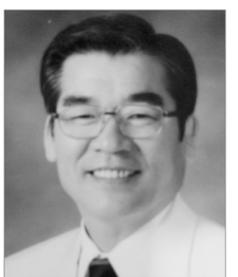
계좌번호 : 농협 301-0140-5587-4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16길 73-4(연건동 195-15)

총회홈페이지 : www.rpck21.org E-mail : pmj0675@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106회 성총회를 축하합니다!!

<p>성현교회</p>  <p>담임 강대민 목사</p> <p>085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10길 42(독산동) 전화 (02)884-2691 / 010-5479-7985</p>	<p>광일교회</p>  <p>담임 장영광 목사</p> <p>14205 경기도 광명시 광복로31번길 5(광명동) 전화 (02)2687-4127 / 010-5004-0114</p>	<p>중심교회</p>  <p>담임 박경남 목사</p> <p>1024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탄현동, 일산위브더제니스) 101동 2507호 전화 010 8800-5342</p>	<p>한빛교회</p>  <p>담임 임용태 목사</p> <p>04776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6 전화 010-5397-2627</p>	<p>영복교회</p>  <p>담임 이흥년 목사</p> <p>10218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송포로 42-1 (대화동 1459-7) 전화 010-8955-1452</p>
---	--	--	---	---

신학



김재석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부총장, 조직신학)

*정상적인 예배와 비대면 예배 사이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고 예배지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일까요? 이에 대한 신학적 답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교회의 중건 조직신학자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금 우리는 공적인 예배가 멈춰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신앙적인 관점에 따라 볼 때에는, 그야말로 대재앙이다. 모두들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더니, 이제는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아예 모이지 않는다. "나쁜 습관"에 중독되어 버렸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토록 철저히 경계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인들의 습통을 조이는 총체적

인 비상 상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먼저 호흡곤란을 겪는다고 한다. 생명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습통을 조이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의 습통을 조이는 것도 거러두기라는 초강수 대책의 결과로 빚어지는 비대면이요, 접촉단절 (인택트 untacted)의 시대적 현상들이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확산(the coronavirus pandemic)으로 인해서, 세계기독교와 한국교회는 치명상을 입고 말았다. 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가공할 유행병이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류는 지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생명을 잃었지만, 그 기간에 교회도 역시 무참히 파괴되었다. 세계대전이 성행할 때에, 자유주의 신학은 기존의 정통신학을 파괴하였다. 전쟁에서의 희생자들 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신실한 교회들을 파괴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교회의 건물들을 파괴한다.

그런 세계 대전 동안에 교회에의 출석예배는 불가능했다. 동시에, 교회가 붕괴되어서 예배가 활성화 될 수 없는 동안에, 교회의 신학을 무너뜨리려는 혁명주의자들의 선전과 책동이 확산되었다. 기독교의 기본 신학이 침탈을

비대면 예배의 문제점(1)

당했고, 자유주의 신학이 번성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시대상과 신학논쟁은 "넓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정반대로 "변질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위필드 박사는 핫지 박사와 함께 성경의 영감성을 변호하였고, 보스 박사와 함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개정에 반대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교회가 각종 집회를 생략한 채, 성도들이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참여하는 예배를 축소한다면, 결국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만다. 그 사이에 정통신학과 성경적인 신앙은 혼탁한 이론의 공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성경적인 신학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더 쉽게 세속화되어지고 만다. 교회가 가능한 한, 모일 수 있는 대안들을 발표하고, 이를 속히 시행해야 한다.

주일예배에 다 모일 수 없다고 하면, 주중예배를 확대해야 한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모일 수 있는 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찬양과 경배에 참여해야 한다. 소규모 집회를 통해서라도, 새벽기도회처럼 어느 날이나 아침이나 오후에나, 저녁에나, 소규모 집회를 개설해야만 한다. 작은 숫자가 모일지라도, 경건의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가져야만 한다. 가공할 전

염병의 위협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고 방치한다면, 결국 교회의 본질이 손상을 입게 되어서 역동적인 은혜를 나눌 수 없게 되고 만다.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란 소명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집회를 가지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 공동체이다.

"에클레시아"는 분명히 회중들의 "모임"이나 "집회"를 가리킨다. 각 지역교회에 해당한다 (행 5:11, 11:26; 고전 11:18, 14:19, 23, 35, 16:1; 롬 16:4; 갈 2:14; 살 2:14). 교회가 "모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 회사를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교동함과 성도의 교제가 상실된다.

교회는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자, 예배와 기도라는 특수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찬양과 경배에 참여해야 한다. 소규모 집회를 통해서라도, 새벽기도회처럼 어느 날이나 아침이나 오후에나, 저녁에나, 소규모 집회를 개설해야만 한다. 작은 숫자가 모일지라도, 경건의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가져야만 한다. 가공할 전

원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어서 긴밀한 교제로 연결하였다. 개인적으로 선택과 소명을 받아 믿게 되지만, 그들이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른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소명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한 지체로 접붙여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란 본질적으로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은혜의 상태로 불러낸 사람들의 교제이다. 그러면 이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서, 대면 예배가 금지된 비상 상태 속에서 어떻게 교제하며, 교통할 것인가?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당황스러운 조치들 속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가공할 질병 앞에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다.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열심을 내기 보다는 흠여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비록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죽음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참된 성도는,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서 흠여지게 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다.

(다음호에 이어서)

동정



이경근 목사(총회장, 평안교회) 13일 전북동노회 고시부회 참석 15일 새은혜교회 임직예배 설교 26일 임원 및 증경총회장회 설교



임종학 목사(증경총회장, 재인교회) 15일(주) 새은혜교회 설립 8주년 기념 및 임직식 축사, 26일(목) 증경총회장 모임 참석, 28일(토) 총회개혁신학 중앙



류현옥 목사(증경총회장, 동명교회) 12일(목) 총회 전행위원회 소위원모임 축도, 15일(주) 새은혜교회 설립 8주년 기념 및 임직식 축사, 26일(목) 증경총회장 모임 참석.



황호관 목사(증경총회장, 본보사장) 15일(주) 새은혜교회 설립 8주년 기념 및 임직식 권면, 26일(목) 증경총회장 모임 참석, 28일(토) 총회개혁신학 중앙



강대인 목사(증경총회장, 성현교회) 12일(목) 총회임원 전행위원회 참석 26일(목) 증경총회장 모임 참석



박형진 목사(부총회장, 새은혜교회) 15일(주) 새은혜교회 설립 8주년 기념 및 임직식 권면, 26일(목) 총회임원회 참석



윤서구 목사(증경총회장, 임마누엘교회) 12일(목) 총회 전행위원회 소위원모임 축도, 15일(주) 새은혜교회 설립 8주년 기념 및 임직식 축사, 26일(목) 증경총회장 모임 참석.



신연식 목사(서기, 디베라교회) 9일(월) 천서위원회 참석 26일(목) 임원회 참석



김정호 목사(전북노회장, 한소망교회) 12일(목) 총회 전행위원회 소위원모임 축도



박민진 목사(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 5일(목) 한교연 회의 9일(월) 천서위원회의 12일(목) 총회 전행위원회 소위원모임 15일(주) 새은혜교회 설립 8주년 기념 및 임직식 축사 26일(목) 임원회 참석

신학&신앙

계시록 5분 강의노트 (6회)



장영 목사 (신학박 교수)

오늘은 제 2:8-11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에 나오는 서머나란 곳은 가히 아시아의 영광이라 불릴 만큼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으며, 당시 에베소와 아시아 제일의 항구가 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에베소 항구가 강으로 밀려오는 뿔 문제 때문에 항구로서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게 되자 서머나 항구가 에베소 항구를 누르고 아시아 제일의 항구가 됩니다.

한편 서머나는 로마와 가장 오랜 동맹을 유지했던 도시로서,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이면서 철학자인 키케로 같은 이는 서머나를 "우리의 동맹 중 가장 우호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로마에 대한 충성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을 세우기 위해 여러 도시들이 경쟁하였는데 서머나가 로마에 대한 오랜 충성의 대가로 주후 26년에 그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소아시아의 제일의 항구였으며,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있던)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옛 수도이며, 사단의 권좌가 있다고 할 정도로 우상숭배로 유명했던) 버가모에게 늘 밀렸던 서머나는 이제 에베소에 못지않은 아시아 제일의 항구로서, 그리고 버가모에 못지않은 로마제국의 제2대 티베리우스 황제신전을 갖게 됨으로서 이제 아시아 제일의 도시란 이름을 두고 그들과 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램세이(Ramsay)란 학

자는 일류도시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그동안 에베소와 버가모에 밀렸던 서머나 도시에게 보낸 편지서두에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란 묘사는 바로 과거에 죽었다가 살아나 아시아 제일의 도시란 이름을 두고 다투고 있는 서머나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특별한 모습은 과거에 죽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서머나 도시의 역사와도 꼭 들어맞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칭찬부분으로 서머나 교회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겪는 환난과 궁핍에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부요한 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와야 할 편지의 폐

탄 중 책임부분이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교회로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에서 그들에게 또 다른 고난과 환난이 올 것을 말씀하시며 "충성하라"는 권고로 이어지는데, 여기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계시록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표현들은 1차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구약에 나오는 사건이나 지명, 상징, 숫자 등과 관련된 것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0일이란 표현도 구약에서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요? 바로 단 1:12-15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3친구가 바벨론 왕이

내리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감옥에게 10일간 채식과 물만을 주어 시험케 하여 다른 동무 소년들과 비교하여 보이는 대로 처분해주시기를 요청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일간의 시험을 잘 이겨낸 것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제한된 환난기간동안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머나 시민들에게 '충성'은 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시민덕목으로 여겨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그들에게 적합한 권고였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축구와 함께 나오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본질적으로 앞 절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약속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부활한 성도들에게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임을 의미하고 20:6과 21:4 등에서 그것의 성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경근 목사 발행인, 이충년 목사 이사장, 황호관 목사 사장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Table with 4 columns: Name, Amount, Name, Amount. List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개인예배광고 년 300,000원
1년 1번 구독료 50,000원
기타 개인후원 등등

연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관 목사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년에 한차례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신문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년구독료는 5만원 입니다.

* 예배광고비는 년간 30만원 입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03127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연건동 195-15) 전화: 02)742-3538, 010-6358-0191 팩스: 02)742-3539

지상설교

우리 신앙의 모습 (사도행전 9장1-19절)



이충년 목사 (중경총회장)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매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큰 변혁을 거쳐 사명을 감당하는 원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 자기 핍박의 시기

회심 전의 사울은 자기가 부풀려져서 지나칠 만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며 자신감을 과시하는 자기 핍박의 시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테반을 죽인 장본인이요 살기등등하여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학하였습니다. 사울 속에는 자기가 꼭 차서 스테반이 선포하는 진리를 받아들이 여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교육을 받은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도, 사울도 당대의 지성인들이었으나 그들이 받은 교육의 결과만으로는 살인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현주소는 회심이 전의 사울처럼 자기 과신, 자기도취, 자기 고집으로 팽창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2. 자기 붕괴의 시기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도가 확산되는 것을 근심한 사울은 그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크고도 강한 빛의 급습으로 거꾸러지고 맙니다. 스테반을 죽인 일에 대해서도 옳다고 확신을 가졌던 사울에게 홀연히 들린 하늘의 음성은 사울의 지적 창공에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우월감에 빠졌던 사울의 교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까지도 변화시켜 일꾼으로 삼으시며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실만한 아들을 채찍질하십니다(히12:6). 그러므로 자기 핍박의 시기에 있는 사람에겐 이와 같은 자기 붕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패의 때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시기로 회개의 기회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부정의 사랑은 자기 핍박의 사랑보다 진보된 것이긴 하나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3. 신생의 시기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는 새로운 삶의 시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을 부르시사 과거의 사람을 벗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그로 하여금 비굴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주님의 부활을 의심치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눈에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에서도 의심의 비늘이 떨어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교만과 편견과 자아 중심적 사고에서 자유롭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며 믿음을 갖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눈은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으며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전처럼 자강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립니다 나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회심 이전의 사울처럼 자기 핍박의 자리에서 자기 과신의 삶을 살며 교만에 빠져 있다면 그 삶은 헛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진 사울처럼 실의에 빠져 넘어진 자가 있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가시를 향해 뒷발질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제3의 시기에 처해야 합니다. 옛 자아를 타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해외선교

사랑 기쁨 8월의 소식



지중해인근의 타우르스산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2차 선교여행 때 지나온 여정에 속한 역사적의미가 큰 산입니다. 8월 중순에 발생한 산불이 아직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실상가상으로 후해지역에 발생한 큰 홍수의 여파로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를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흘러내리는 토사와 돌들이 도회지의 건물들을 무차별적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집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생생하게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불씨를 능가하는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흑암 속에 있는 T국에 불어와 완전히 변화시켜주소서!" 여러분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청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 공동체와 함께 했던 짐바브웨 청년 만델라(25)가 K시의 S 대학교공대를 졸업한 후 1년간을 홀로 지분을 뚫는 믿음으로 8월9일 미국 뉴욕

북부 로체스터공대대학원 전기공학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중 하나인 짐바브웨에서 태어나 어릴 적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홀어머니 품에서 자라난 형제이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고교시절에 만난 예수로 말미암아 갖게 된 꿈이라고 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신용하는 조국을 위해 섬기는 것이라고 늘 해 왔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던 기특한 젊은이였습니다. 그에게 미국유학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가 떠나기 전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함께한 후 편도항공권의 절반이지만 음원을 해주었습니다. 아무도 도울 이 없는 낯선 땅에서 오직 주의 도우심을 믿는 형제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7월에 독일의 H시로 부터 친척이 사는 K시를 방문한 믿음의 청년 B자매(26)가 방문해 저희 공동체의 주일모임에 동참했습니다. B자매는 무슬림으로 태어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다가 부모의 결정으로 독일 H시로 이민하여 그곳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T국인 공동체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K시에 주의 공동체가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더니 기뻐했는데 지난 주 다시 독일로 돌아간 B자매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섬길 수 있기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6월말 전도용 광고지가 너무 무거워서 대중교통편 대신 운전해서 A시로 가는 길에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습니다.

늘 있던 일이라 그날도 트렁크를 열고 보여주었는데 마침 가져간 전도용 광고지를 보고 무엇인지 물었고 기독교용 소책자라고 조심스런 대답을 했지만 놀랍게도 소책자 몇 권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소책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외의 장소에서 만난 경찰관이 전도용 소책자를 요청하는 작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 밖의 장소에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

기를 기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7월초 1시의 BCC(성경통신협회)에서 사역하는 미국인 사역자 두 형제와 현지인 형제가 K시의 저희 공동체를 방문해서 함께 조찬을 하며 팬데믹의 비 대면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심자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관심자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줄면서 스마트폰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제가 그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능숙하지 못한 약점을 보완하면 팬데믹이 길어진 새로운 상황에서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틀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부군으로부터 수도 카불을 20년 만에 무혈 탈환한 뒤 탈레반의 보복과 샤리아 이슬람 율법의 시행을 두려워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육로로 이동 할 수 있는 T국에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T국 정부가 북 이라크와 이란국경을 봉쇄하고 있지만 국경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T국에 5백만이 넘는 시리아난민을 위한 구제예산이 바닥이 난 T국의 재정과 렌트비의 2배 이상 상승 실업률 증가 등, T국 국민들은 난민유입을 부정적으로 여기는데 T국에 아프가니스탄난민의 유입이 주님의 뜻이라면 K시에서도 땀을 제공하는 공중서비스와 함께 아프간 페르시아어(이란어와 유사함)로 난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T국에서 일어난 지중해 인근 산불의 남은 불씨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복음의 불씨로 변화하며/ 흑해지역의 홍수로 집을 잃은 이주민들이 거처를 구할 수 있도록
2. 저희 공동체에서 5년여 함께하다가 미국동부로 유학을 떠난 만델라형제가 주의 도우심으로 대학원을 마치며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속히 구할 수 있도록
3.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망설이지 않도록
4. 주께서 아프가니스탄난민이 늘어나는 K시에 그들을 위한 사역자를 보내주시며 약한 공동체인 저희도 난민들을 위한 복음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도록

총회개혁신학연구원 2학기 종강

총회개혁신학연구원(원장 임종학 박사)은 여름학기를 8월 28일에 종강한다고 알려졌다. 코로나 19의 광풍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학우들의 학구열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비록 코로나의 강력한 위협이 있었지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현장수

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수강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만큼 강의실은 열기로 가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최고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어 수업이 2차례나 지연되었고, 예정된 종강이 2달여 미루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시대적인 소명

의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우들은 단 순히 학교수업에 참석하느냐 미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학생들은 입을

모았다. 각자의 삶과 학업을 병행해 나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사명보다 그 무엇도 우선될 수는 없을 것이며, 목회 현장에서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설 수 없기에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과 더불어 사명자로서의 훈련을 병행하는 시간이었다.

학교는 학기 동안에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갖추게 되었고, 어떠한 상황에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보람 있는 방학이자 모자라는 과목을 보충하는 연장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학생들에게 당부하였다.

제106회 성총회를 축하합니다!!

성인교회



담임 정완득 목사

550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24-6(참선동1가) 전화 010-7285-8291

동주교회



담임 김양섭 목사

1141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185번길 110-16 전화 (031)873-6857 / 010-7221-5852

월드비전교회



담임 김선영 목사

10077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전원로32 전원마을 월드상가내 전화 010-2301-0898

임마누엘교회



담임 윤서국 목사

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534번길 6-8(산성동) 전화 010-3722-9106

중울산교회



담임 김정용 목사

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림3길 11-2(성안동) 전화 (052)243-0255, 243-0344 010-3848-0691

더불어 생각할 正論

하나님은 지도자를 찾고 계신다



류현우 목사 (총동맹회장, 동명교회 담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유형의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신다.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계시며 집단이 아니라 한 실존의 인간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헌신 된 지도자의 수는 항상 부족하다.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속에는 당대의 유명한 명사나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덕망 높은 성직자나 큰 학자나 유명한 인사가 없었다.

저들은 예루살렘 도성의 출신이 아닌 갈릴리 촌락의 출신이었고 저들은 정상적인 세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지도력이 나타났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으며 이에 부응하는 특별한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지도자는 사회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교회 내에서 공격의 대상의 되거나 비난받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한다.

계 감동을 줄 수 있는 성품을 지녀야 한다. 지도자는 도덕적인 면에서도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 시대 공동체 안에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한다.

영적인 지도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마음에 맞게 정신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논쟁이 아니라 영적 처치와 수완을 지닌 분별력의 사람이다. 영적 지도자는 다루는 것을 삼가는 사람이기 이전에, 평화적인 뜻으로 항상 어려운 문제, 결정적인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애쓰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도자는 관용을 베풀고 인정이 있어야 한다. 너무 민감하거나 전혀 관용이 없이 완전주의만을 주장하거나 불필요한 자기 변명에 급급한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영적 지도자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 만일 그의 가정 이 어수선했다면 자녀들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가치 있고 후한 대접을 베풀고자 하는 그의 능력은 크게 제한 될 것이고 다른 가정들에 끼치는 그의 영향력도 매우 감소 될 것이다.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와 지도력이 행사되어야 하며 온 가족이 이를 위해 헌신과 화합을 해야 한다.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남에게 비방 거리가 되는 자신의 모진 행동을 언제나 성찰해야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몸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헌신적인 사람으로 감당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과 몸까지도 주 성령님께 맡길 때 할 수 없다면 일까지도 거론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목양칼럼



김정웅 목사 (총신교회 담임)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과용하거나 오용하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켜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몸에 좋은 약도 제조사는 반드시 그 약이 가지고 있는 효능 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명언이 있다. 이 말은 칭찬과 격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극대화시켜 긍정적인 성과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양약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칭찬의 밝은 면을 보여주는 말이다. 그러나 칭찬의 어두운 면도 있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 독약이 되어 파멸에 이르게 한다.

카나리아가 매우 아름다운 노래 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마을의 부자가 그 카나리아를 사서 집으로 가져갔다.

그러자 카나리아는 그만 우쭐해졌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노랫소리를 그칠 줄 몰랐다. 카나리아의 노랫소리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끄럽다고 항의를 할 정도가 되었다.

결국 그 부자는 그 카나리아를 헐 값에 시장에 내다 팔아버렸다. 그러

칭찬의 독배를 피하라

나 그 후 그 카나리아를 사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가운데는 칭찬의 독배를 마시고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교만한 군주는 아첨의 말을 칭찬으로 여겨 독선과 아집에 빠져 자신을 신격화 하거나 폭정을 하다가 몰락한 인물들이 많이 있다.

헤롯왕은 자신의 연설을 들은 청중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열광하며 아첨하는 말을 칭찬의 말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쭐하다가 주의 사자가 처신으로 벌레가 먹어 죽었다(행12:21~23).

고 이순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려는 참모들의 아첨의 말을 국민들이 보내는 칭찬으로 받아들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강행하였다가 젊은 학생들과 국민들의 저항으로 권좌에서 물러나 미국 땅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이문열 작가의 작품 가운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다. 이 말은 오스트리아의 시인 ‘잉게보르크 바하만’의 시(詩)에서 따왔고, ‘바하만’은 그리스 신화 ‘이카로스의 추락’에서 차용하였다.

이 신화는 ‘이카로스’가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하고 하늘 높이 비상했다가 그의 말발 날개가 태양열에 녹아 버려서 바다에 추락하고 만다는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교만의 위험성을 일깨워 준다. 즉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는 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한 나머지 자신의 지위를 떠나 하나님위에 오르려다가 추락한 사단, 곧 루시퍼 천사가 교만의 날개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이다.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는 사단의 수괴가 되었고, 이 사단이 인류의 조상 아담을 하나님처럼 된다고 부추기는 말로 미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 먹게 한 후에 멸망의 나락으로 추락시켰듯이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간사한 아첨의 말이나, 칭찬의 독배에 취하게 하여 추락시키고 있다.

우리를 높이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라고 해도 그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는 것은 정말 꼴불견이다.

그러므로 잘 나갈 때, 칭찬을 들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칭찬을 들을 때 사단이 틈타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칭찬의 독배에 취하여 교만해져서 우쭐거리다가 추락한다.

우리는 칭찬을 독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칭찬을 통해 사단이 달아주는 교만의 날개를 벗어던지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초대칼럼



문용길 목사 (한마음교회 원로)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말,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이미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모른 채 많은 말을 쏟아내며 살아오고 있다. 우리의 조물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색깔의 의미도 부여하셨을 것이다.

입술은 빨강고 이는 하얗고 입안은 온통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어 마치 조물주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말을 할 줄 아는 인간은 들어라. 말이란 자기 생각과 내면의 의중을 밖에 드러내 보이는 통로다.

그러나 원칙이 있다. 사랑과 열정 그리고 결백과 순결의 관문을 통과해야 말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빨간색은 경고성이 강한 색이다. 사랑도 빨강, 피도 빨강, 분노도 빨강, 그래서 하는 말인데, 공산주의는 온통 빨강이다. 오죽하면 조상들이 ‘빨갱이’라는 별명을 붙였을까? 그 색깔만큼이나 경고, 주장, 분노, 불의, 선동, 거짓, 자기의 말만이 옳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달려 온 그들의 역사를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말이 생성되는 것을 직설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말은 생각에서 출발한다. 생각과 말이 직통으로 연결되어 순간적으로 입은 열리고 마음은 이미 듣는 귀에 걸려 있다. 자신의 습관대로 속사포

입소문과 귓속말 이야기

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 주둥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부류들은 상처를 입힌 후 책임을 물으려면 자신의 속마음을 두드려야 했는데 엉뚱하게도 나팔수에 불과한 입술만을 때리니 입술은 하수인에 불과한데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말은 은밀하게 퍼지는 소문의 나팔수이고 귓속말로는 조용히 주위를 살펴 말해도 그 울리는 파장이 속단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매우 커도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무시하고 또 자신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한번 다정한 친구에게 귓속말로 정보를 나눠보라. 그러면 그 파장과 영향력을 즉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파력에 가슴을 쓸어내릴지도 모를 것이다. 한번 실험해보라. 百聞이不如一見이라는 실험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위해 경험을 쌓는 일이나 실험해 보라. 인간은 대부분 비밀과 호기심으로

풀풀 문쳐있는 존재이어서 실험은 적지 않은 효과를 볼 것이다.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비유 가운데 누룩의 비유가 나온다. 나는 사람의 내면이 호기심에 긴 목을 빼고 비밀이란 말을 좋아하기에 주님은 은밀하게 퍼지는 누룩의 특성을 이용하라는 뜻이 내포되어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하철이나 어떤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소리로 전하는 분들이 있다.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어떠한가? 듣는 분들 편에서 말한다면, 효과는 미미하다.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분들이 매우 적기 때문이고 전혀 없다는 표현도 거짓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옆에 가까이 앉은 분들의 귀에 소곤소곤 말해보라. 깊은 관심과 함께 귓속말로 말한 의도대로 행동에 옮길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이다. 사람의 호기심은 깊고 비밀을 좋아하는 밀도가 조밀

하기에 복음을 전할 때 누룩처럼 소리 없이 퍼져가는 것을 말씀하셨으리라 고 본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주님의 행적도 광고하기보다 입단속을 시켜 은밀한 중에 움직이려고 하였으나 그러한 경우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왔으니 주님은 지혜롭게 사람의 이런 심리를 이용하셨을까?

물론 행하심이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었지만, 우리의 언행이 누룩처럼 조용히 사람을 부풀리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입소문과 귓속말을 더 선호하고 관심이 큰 것을 보면, 인간 심리가 은밀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말을 선호하니 한번 검증 대에 올라 자신을 검증하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면 긍정의 의도를 가지고 복음 전파의 극대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요강

총신대학(합동) 사이버대학 학생 모집



이사장 윤서구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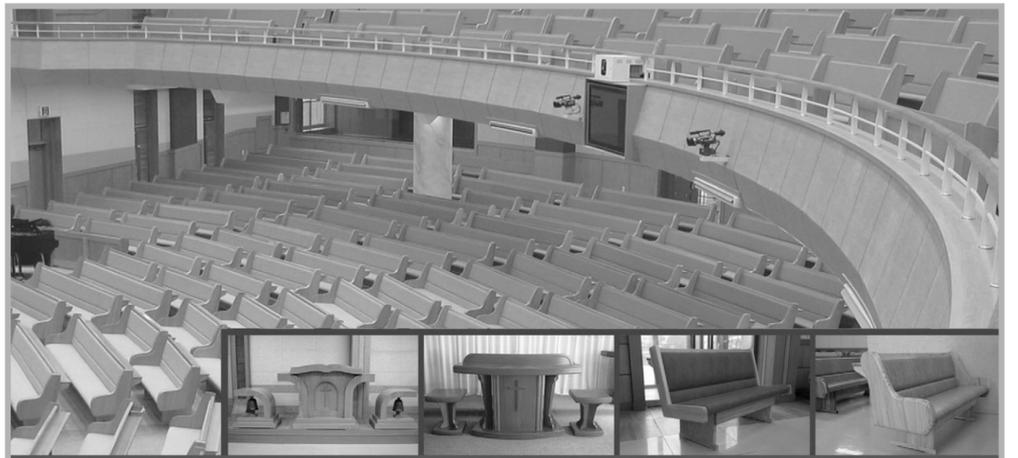


원장 임중학 목사

과정	자격	학제	특전
목회학석사 (M, Div, eq)	- 일반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신학교 졸업자	6학기	* 교육부학사학위(사이버) * 졸업 후 목사안수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 졸업 후 목사안수
목회학 박사 (D, Min)	- 목회학석사(M, Div) 학위 - 목회경력 5년 이상자	6학기	* 미 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 대학교)
대학부	- 고등학교졸업 - 지방신학 3년 졸업	8학기	* 교육부 인정 학위(사이버) * 오이코스대학교 편입
사모대학	- 현 목사 사모	2학기	

* 총회인준신학교 전복개혁신학연구원
* 총신대학교 - 원격 평생교육원 서울 사이버 에듀

1. 접수 : 2021년도
2. 수업장소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연건동 195-14)
3. 문의처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010-7294-0571 / 02)742-3538
4. 후원통장 : 농협 317-0013-9840-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이사 김재호 총로 010-3653-6162 (본 교단 전북노회 한소망교회 사무)

(주)모리아성구사

기술 특허 업체
품질 인증 업체
벤처기업인증업체

문의 1644-6162

사훈

신앙 :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며
품질 :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자세 : 최선을 다하여
목표 : 세계선교를 이루자

강대상, 장의자, 개별의자, 극장식 의자, 레자 방식, 성가대 가운 등 기타 성구품목 전문생산

MORIAH MORIAH www.moriah.kr

서울 사무실 : 고객센터: 1644-616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16(송파동) 3층
전주 공장 : 일반전화: 063)211-616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97-4
인도네시아 공장 : 14A Block F1 Tamman Pinang Indha, Sidoarjo, Surabaya Indonesia

재언 총회임원전행위원회에 드리는 글



김양섭 목사 (동주교회)

우리는 소명과 사명의 현장에서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공통과제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두고 사람을 부르신다. 그 목적은 대제사의 수행과 지상명령의 준행이다. 우리는 이 목적 때문에 심히 어려움을 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나날을 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에 내몰려서 방역수칙이라는 명분 앞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삶을 영위하면서, 원수 같은 코로나와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 채 말이다.

이런 위중한 때에 우리 교단은 제 106회 총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총회는 어떤 총회보다 중요한 총회라 생각한다. 총회는 우리 개혁교단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총회에서는 조직문제, 인사문제, 재정문제를 다룬다. 그러하기에 모든 총대가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며 총회를 준비해야 한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해 두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방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고 당부하신다. 가까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막중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다. 우리가 감당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된 지상명령의 승계이다. 그 지상명령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전파의 사명을 지극히 당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총회 임원을 규모 있고 책임있게 잘 세우는 그 일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천부에서 총회임원전행위원회를 공천하고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줄로 알고 있다. 그 위원회에 임원전행을 위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임원회 구성에 필요한 9명을 꼭 채워주길 바란다.

우리교단은 몇 년간 총회임원구성 의 만석을 이루지 못해왔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전행위원회로 바꾼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행위원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주기 바란다. 교단 안에 인물이 없어서 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원선거에 출마를 기피하는지를 분석하여 전형원칙을 수정해서라도 꼭 정원을 채워서 규모 있는 교단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또한 총회 발전기금 때문이라면 교단의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한다. 교단의 인물을 키우는 차원에서라도 권면하고 설득하여 세워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에 그러하다. 둘째는 자각미달, 함량미달인 인물은 임원으로 세우지 말아줄 것을 주문한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아무 목적이 없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다. 분명한 목적 때문에 부르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또한 이 목적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총회의 임원은 예수님의 제자중 제자라고 말하고 싶다. 총회임원은 조직교회의 총대이어야 한다. 임원의 가치와 위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이다. 전행위원들은 철저히 임원서류를 검토하고 또 자격 미달자는 서류 자체를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헌법과 규칙대로 결정하기를 당부한다. 그러기 위해서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위법인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임원으로 추대되거나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 규칙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 이번 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정비가동 되어서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임원이 세워지고 삼부부와 상임위원회가 조직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빌어 본다. 또한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는 말세에 뜻하지 않게도 이상기후현상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급변하는 세계정세까지 가세하여 우리를 긴장케 한다. 이런 위중한 때에 열리는 제106회 총회가 성경적 복음진리를 바르게 세우고, 개혁부에서 총회임원전행위원회를 공천하고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줄로 알고 있다. 그 위원회에 임원전행을 위하여

광야의소리



황호관 목사 (경경총회장, 본보 사장)

주님의 몸인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당회원을 비롯한 모든 교회의 일꾼들은 도쿄 올림픽 한국 여자 배구팀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한다. 더욱이 제106회 총회를 앞두고 있는 이즈음에 새로운 임원들이 꼭 그리 했으면 좋겠다. 달포 전에 끝난 도쿄 올림픽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한국대표 팀 가운데 양궁과 여자 배구팀이 큰일을 냈다. 양궁은 이미 인기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메달 또한 많이 따오니 칭찬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여자 배구 팀은 메달이 없는

한국여자 배구팀을 벤치마킹하자.

무관입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칭찬과 국민적 성원을 받았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된 것은 억지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일순간의 해프닝이 아니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첫째, 감독의 작전과 사인에 주시하라. 승리하는 팀 마다 유능한 감독이 거기 있었다. 여자 배구선수들은(라바르나)라는 결출한 감독의 지도를 받았다. 그 감독은 본디 배구선수가 아닌 팀 분석관이었다. 그렇다면 실전 기술이나 경력으로 하면 코트 안에서 뛰고 뒀구는 선수들이 훨씬 낫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그 감독의 지시와 사인에 의해서만 움직였다.

교회는 팀에도 감독이 있다. 주께서 세우신 담임목사, 당회장이 개체교회는 팀의 감독역이라 해서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목사는 교회에서만은 라바르나 보다 뛰어난 감독이어야 한다. 총회 임원화라는 팀은 총회장을 주장으로 해서 예수 감독의 지시에 주목

해야 한다. 모든 팀원들이 감독의 지시와 사인에 의존하여 일사불란하게 뛰고, 앉고, 몸을 날리듯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러하면 교회는 틀림없이 승리한다.

둘째,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대표선수가 되었다는 그것 자체가 자부심이고 자존심이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부심이고, 자존심이어야 한다. 부름을 받았고, 특수 임무를 부여 받았으니 어찌 자랑스럽지 않은가?

그렇다고 교만만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진다. 올림픽 끝나기도 전에 짐 챙겨서 비행기 타고 귀국해야 한다. 예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다. 주님의 교회에 일꾼이라는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셋째, 원 팀을 이루어야 이긴다. 양궁이 그러했고, 여자배구 팀 역시 그러했다. 감독과 선수가 하나요, 선수와

선수가 온전히 하나 뒀이 원 팀이다. 남자 야구팀은 원 팀에 실패해서 국민 챔피언이 되고, 미운 오리새끼가 되고 말았다.

고린도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 팀에 실패해서 초대교회를 가운데 문제종합세트장이 되고 말지 않았는가? 오늘의 교회는 어떠한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원 팀이 되어 있는가를 성찰할 때이다. 제106회 총회가 승리를 거두려면 원 팀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통해야 한다. 어느 선수라도 시합에 임하면 긴장하게 된다. 목회자가 강단에서면 긴장하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그 긴장을 푸는 방법이 소통이고 응원이다. 양궁의 막내 김제덕 선수처럼 파이팅을 외치고, 배구코트의 의 큰 언니 김연경 선수처럼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를 외치면 된다. 그러나 식빵만은 자제하고, 껌은 절대로 씹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엄청난 보상을 기대하라.

양궁 선수들, 그리고 여자 배구선수들이 받은 포상은 어떠 무시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성경에 집사의 직분을 잘 한자들에게 주실 상을 약속해 두셨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열 마인기 역시 우리 모두가 아는 바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니 어찌 그 상을 포기하겠는가?

끝으로 은퇴는 없다는 생각으로, 죽을 힘을 다해 총성하자. 양궁 만능 오진혁 선수는 다음 올림픽도 약속했는데 김연경 선수는 대표선수 은퇴를 선언했다. 주님의 교회의 대표선수들에게는 은퇴가 없다.

어떤 선수이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은퇴해야 한다.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나이는 속일 수 없기에 어쩔 수가 없는 순리이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죽도록 총성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총성해서 면류관 받아야 한다.

목양칼럼



박형진 목사 (부총회장, 새은혜교회)

한국 여자배구대표팀 주장, 33살, 세계제일의 연봉 여자배구선수, 김연경 선수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다.

한국 여자배구대표 팀을 올림픽 4강으로 이끈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은 2020 도쿄 올림픽을 치르며 김연경(33)에 대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다시 깨닫게 됐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세르비아와 동메달 결정전을 마친 뒤에 공동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난 감독은 “김연경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얼마나 강한 선수인지 알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김연경은 배구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배구코트에서 배운 월드 클래스 리더십

말이 과장으로 들리거나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언젠가 자랑스러워하지 않겠는가? 언젠가 자랑스러워하지 않겠는가? 언젠가 자랑스러워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김연경이 보여준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기억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수준급 감독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김연경 선수의 리더십 스타일을 돌아보면서 교훈을 삼고자 한다.

첫째, 그는 기본기를 갖춘 선수이다. 모든 경기의 선수, 지도자할 것 없이 기본기가 우선이다. 무엇이든 기본이 안 되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라는 간단한 속담이 이를 증명한다.

연경 선수는 언니를 따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구코트에 나갔다고 하니 본을 의신할 여지가 없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여 세계여자 배구계의 최정상에 우뚝 선 것이 우연이겠는가?

목사로서 기본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돌아본다.

둘째 그는 천부적 소질이 있는 선수

이다. 이런 인터뷰에서 어떤 기자가 묻기를 “제2의 김연경이 쉽지 않아 보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고 물었다.

“나처럼 되는 건 쉽지가 않다. 내가 잘 하긴 하니까”라고 대답하며 주변을 웃긴 일이 있었다. 그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건방져 보인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경 선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대답에 쉽게 수긍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언사는 끝없는 연습에서 나온 자신감 넘치는 자기 확신이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는 평가를 그의 천부적 기질을 웅변하는 평가라 믿는다.

과연 뛰어난 사람은 천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낸 인물이라는 말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목사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천재성, 천부적 기질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살펴야 하리라.

셋째, 그는 성실한 선수이다. 김연경 선수는 자기 자신만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기에 그 만큼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이다.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중 넘어갈 생 각하지 말라.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냥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중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동료 선수, 후배 선수들을 향한 연경선수의 독려의 인사라 한다.

그만하면 좀 쉬어갈만도 하지 않은가? 배구의 도인이요, 신의 경지에 도달했으면서도 연습벨레이기를 자칭했다니 그의 리더십 앞에 누가 감히 토를 달겠는가?

리더십은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 성실성으로 말해야 한다. 대중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바로 성실함에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잔꾀에 능한, 그런 사람은 절대 리더십을 가질 수 없다.

넷째,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이다. 여자 대표 팀은 지난 2020도쿄 올림픽 아시아 대륙 예선전에서 태국을 꺾고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당시 김연경 선수는 부상 중이라서 감독과 코치진은 출전을 권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경기의 중요성을 알기에 모든 걸 걸고 진통제를 맞고 경기에 임

하였다니 그의 책임감과 후배 선수들에 대한 깊은 배려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 보자, 해 보자, 후회하지 말고 해 보자, 해 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다독인 말은 이번 도쿄 올림픽 때 도미 나가 전에서 역전승을 이끌어낸 주장 김연경의 간절한 메시지였다고 선수들은 말한다.

이 말에 모두가 하나 되어 결국 역전승을 거두었다고 선수들은 입을 모은다.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끊임없는 응원과 소통! 이것은 탁월한 지도자 갖는 리더십의 일면이다.

과연 우리는 팀을 이루고 있는 동역자들을 얼마나 배려하며 소통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김연경 선수의 리더십은 겸손함과 소탈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배구계의 여왕이라는 말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음에도 그에게서 권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식빵을 연 발하고, 초년생 같은 세리머니는 귀엽지 아니한가? 그는 겸손함의 끝판 왕이다. 그런데서 진정한 리더십이 서는 것이다.

제106회 성총회를 축하합니다!!

소성교회



담임 이승규 목사

55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길 16-11(삼천동1가)
전화 (063)226-9111 / 010-7420-0634

수원성심교회



담임 박춘배 목사

16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

온누리사랑교회



담임 이해동 목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45길 33(방학동) 3층
전화 010-2913-3059

한소망교회



담임 김정호 목사

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암길 10(반월동)
전화 010-3652-9191

김제반석교회



담임 이부교 목사

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은3길 21
전화 010-3657-0464

목양 내조記-8

대학생 사역을 사임, 교회사역에 전념하다.



양영자 사모 재인교회

양영자 사모는 재인교회 원로 목사 임중학목사의 사모로서 1975년 결혼 후 45년 동안 동역했다.

명이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우리교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였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 주시고 조직교회의 모습을 갖추도록 인도하셨다.

성도들은 말씀으로 양육 받으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 받는 은혜를 체험했다. 질병 치유와 몇몇 난임 가정의 자녀 출산, 성도들의 사업의 번영, 순조로운 직장생활, 내실 있는 주일학교 교육을 통한 자녀들의 믿음 성장 등,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

남편은 ESSF 간사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6년째인 1983년 5월 11일에 재인교회를 개척하였고 2000년 12월까지 ESSF와 재인교회 사역을 겸임하였다. 그야말로 잠자는 시간만 빼고 복음 사역에 힘을 쏟아야 했다.

두 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다. 나는 교회사역에 남편이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필요한 사역을 하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심방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일을 도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히게 하셨고 교회와 ESSF 사역을 겸임하는 중에도 은혜를 주셔서 ESSF 사역이 많이 성장했고 재인교회도 꾸준히 부흥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의 주일학교와 ESSF 사역의 학생이면서 우리를 돕는 동역자들이었다.

대학생 복음 사역은 복음 중심의 가치변화와 신앙 인격 훈련과 공동체 생활의 훈련을 한다.

이러한 사역을 하려면 성경공부와 기도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강도 높게 실행되어야 한다. 지역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러한 삶은 신앙과 인격의 폭을 넓게 하며 성숙하게 한다. 교회사역은 우리 부부에게 대학생 사역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사야를 넓히며 사역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교회와 ESSF가 성장함에 따라 계속해서 겸임하기 힘겨운 상황이 되었다. ESSF는 남편을 비롯하여 헌신적인 간사 20여명의 간사들이 동역하였으며 400여명의 대학생들이 매주일 나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다. 금요 채플에는 전주시에 있는 6개 대학에서 3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으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리는 ESSF를 휴임 간사에게 맡기고 교회만 전담할 것을 결단해야 했다. 우리 인생의 짧은 날을 ESSF 사역에 쏟아 붓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사역을 떠나기가 참으로 아쉽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몸의 일부를 떼어 내는 듯한 아픔을 뒤로 하고 ESSF를 사임했다. 뒤돌아보니 사역이 성장하여 제자들에게 맡기고 다음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었다. 부족함이 너무 많은 죄인들을 부르시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뿐이다.

남편은 자신의 목회 철학과 복음주의 신앙에 기초하여 성도들을 섬기며 이끌어 갈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 성장을 위한 로드맵 또는 마스터플랜

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공유하고 이끌어 가려는 계획은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대학생 때에 선교단체에서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제자훈련을 받아 사역자가 되었지만 지역교회에서 생활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사는 성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오직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다. 순조롭게 나아가던 사역에 어려움이 생겼다.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중직자 가운데 몇 사람이 모여서 목사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회에 피해를 입히는 일을 행했다.

마침내 그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함께 교회를 떠남으로 교회 분위기가 나빠졌다. 남편은 힘이 빠져서 날개가 꺾인 것처럼 힘들어 했고 몇몇 성도들의 비협조로 사역의 발목이 잡힌 듯이 괴로웠다. 무엇보다도 특단의 조치로 남편에게 필요함을 느꼈다.

한기총 임시대표, 한교연·한교총 대표에 '3자 회동' 제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이하 한기총)가 교계 연합기관 통합 논의를 위한 기관통합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를 구성하고, 한교연(한국교회연합)과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 대표 회동에게 '3자 회동'을 제안했다.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법률 안고 사는 성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오직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다. 순조롭게 나아가던 사역에 어려움이 생겼다.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중직자 가운데 몇 사람이 모여서 목사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회에 피해를 입히는 일을 행했다."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법률 안고 사는 성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오직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다. 순조롭게 나아가던 사역에 어려움이 생겼다.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중직자 가운데 몇 사람이 모여서 목사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회에 피해를 입히는 일을 행했다."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법률 안고 사는 성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오직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다. 순조롭게 나아가던 사역에 어려움이 생겼다.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중직자 가운데 몇 사람이 모여서 목사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회에 피해를 입히는 일을 행했다."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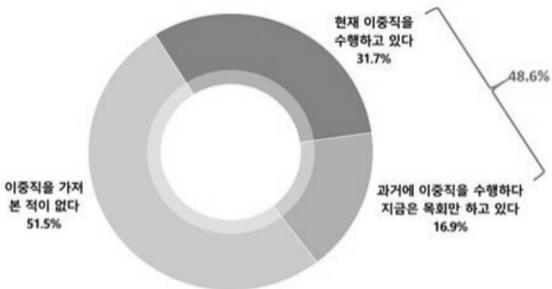
김 임시대표회장은 "지금이야말로 교계 통합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다. 골든타임"이라며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서로 다른 조직이 하나 됨을 이루는 통합, 그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길은 같음을 부각하고 다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름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통합에 반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그는 "결국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같음을 채워 넣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기총 통준위는 김현성 위원장을 필두로 스고문: 김자연·엄기호 중경 기관 통합의 대의에 대해서는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각 기관 대표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합에 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김 임시대표회장은 "통준위는 기관 통합을 위한 실무적 준비 및 보완작업을 담당하게 될 임시기구로서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역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은 교회 목회자 약 절반이 '이중직' 경험

출석교인 50명 이하 교회 목회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작은 교회 목회자 가운데 약 절반이 이중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예정 합동·통합, 햇빛회, 아시아미션과 공동으로 '이중직 목회자 실태 조사 및 각 교단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사는 주회 측이 (주)지앤컴리

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예정 합동·통합, 햇빛회 소속 목사 가운데 일반 목회자 400명, 현재 이중직인 목회자 200명을 합산해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목회자 모두는 출석교인 50명 이하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다.

설문에서 전체 목회자 600명 가운데 이중직을 경험한 목회자 비율은 48.6%로 이들 중 연령대는 40대 이하(37.6%)

가, 교회 규모는 출석 교인 20명 이하의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33.7%)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재도 이중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목회자 비율은 전체 중 31.7%를 차지했다. 전체 목회자 가운데 이중직을 수행한 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가 55.5%를 차지했지만, '2020년부터 2021년까지'라는 응답비율은 27.3%로 조사됐다. 이에 주회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더욱 어려워진 교회 재정 상황이 이중직 목회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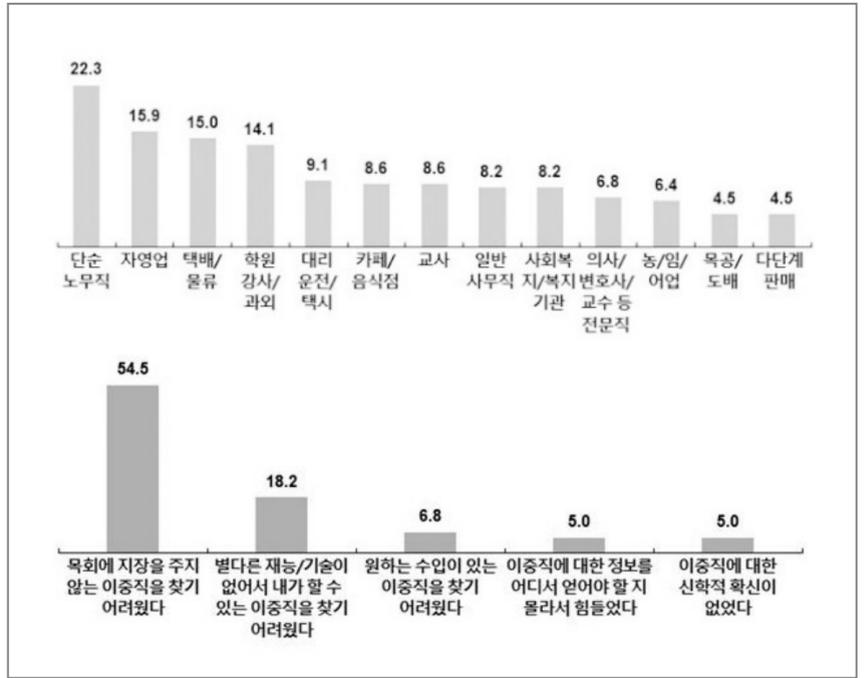
전체 목회자 가운데 사례비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7%로 나타났다. 이어 51만원~100만원(20.9%), 50만원 이하(19.5%) 순이었고, 101만 원 이상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는 11.8%에 불과했다.

'이중직 선택의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어려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60.5%)를 첫 번째로 뽑았다. 이어 '교

회에 의존하지 않고 소신껏 목회하고 싶어서'(19.5%),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선교적 교회를 하기 위해서'(9.1%) 순으로 답했다.

그러나 이중직 중단 사유 가운데는 '해고'(23.6%)가 제일 많았다. 이어 '육체적인 힘듦'(21.2%), '설교·목회 준비 시간의 부족'(19.7%), '목사로서 이중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7.6%), '주위에서 이중직을 안 좋게 봐서'(7.6%), '교회가 자립이 돼서'(7.6%) 순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들이 수행했다고 응답한 직업 가운데 노무직(22.3%)이 제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어 자영업(15.9%), 택배(15%), 학원 강사/과외(14.1%), 대리/운전/택시(9.1%), 카페/음식점(8.6%), 교사(8.6%), 일반 사무직(8.2%), 사회복지 기관(8.2%), 의사/지/복지/변호사/교수 등 전문직(6.8%), 농/임/어업(6.4%), 목공/도배(4.5%), 단단계 판매(4.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서도 목회자 2명 중 1명 이상이 '목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중직을 찾기 어렵다'(54.5%)고 답했다. 주회 측은 "목회와 직업을 양립할 수 있는 이중직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중직 개수에 대해서 응답자 중 27.3%는 2개 이상이라고 답해, 목회자들은 평균 1.3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별다른 재능·기술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이중직을 찾기 어려웠다'(18.2%), '원하는 수입이 있는 이중직을 찾기 어려웠다'(6.8%), '이중직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다'(5.0%), '이중직에 대한 신학적 확신이 없었다'(5%) 등 다양한 사유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다(5%), '이중직에 대한 신학적 확신이 없었다'(5%) 등 다양한 사유 순으로 응답했다.

제106회 성총회를 축하합니다!!

재인교회



담임 임중학 목사

54973 전라북도 전주 완산구 인정2길 6(중화산동2가) 전화 (063)225-0571, 222-0573 / 010-7294-0571

동명교회



담임 류현욱 목사

5461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1길 14-31(동산동) 전화 (063)854-5180 / 010-9654-5180

새은혜교회



담임 박형진 목사

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 이노프라자 7층 전화 010-8424-0688

낙원교회



담임 김종봉 목사

54912 전라북도 전주 덕진구 안덕원2길 10 전화 010-2375-5937

꿈꾸는교회



담임 황호관 목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287번길 5 전화 010-6249-5982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제105회기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



제105회기 세례헌금현황

번호	교회	담임	노회	금액	번호	교회	담임	노회	금액	번호	교회	담임	노회	금액
1	평안교회	이경근 목사	전북동노회	1,000,000	18	중출산교회	김정용 목사	서울남노회	250,000	35	낙원교회	김중봉 목사	전북동노회	300,000
2	성현교회	강대민 목사	서울남노회	440,000	19	성인교회	정완득 목사	전북중부노회	530,000	36	상촌교회	서용진 목사	전남노회	200,000
3	디베라교회	신연식 목사	경서노회	200,000	20	임광사랑교회	박순종 목사	서울남노회	120,000	37	모악교회	홍주일 목사	전북노회	200,000
4	수원성심교회	박춘배 목사	서울남노회	1,200,000	21	임마누엘교회	윤서구 목사	서울동노회	1,010,000	38	화평교회	박종윤 목사	전북노회	200,000
5	새은혜교회	박형진 목사	경서노회	500,000	22	강남교회	배옥선 목사	서울남노회	300,000	39	생명중동포교회	하예성 목사	경서노회	150,000
6	동주교회	김양섭 목사	경중노회	150,000	23	동산교회	박숙희 목사	전북중부노회	150,000	40	새사랑교회	최영일 목사	전북노회	150,000
7	양곡제일교회	문만호 목사	서울남노회	100,000	24	믿음찬교회	이광무 목사	남부노회	150,000	41	소성교회	이수규 목사	전북노회	300,000
8	찬양교회	이다윗 목사	서울남노회	300,000	25	어울림교회	유남규 목사	전북중부노회	200,000	42	엠마오선교교회	이수봉 목사	전북동노회	150,000
9	한소망교회	김정호 목사	전북노회	1,100,000	26	한빛교회	임용태 목사	서울동노회	500,000	43	좌표은총교회	주상기 목사	전북동노회	150,000
10	에벤에셀	진상운 목사	전북중부노회	150,000	27	동명교회	류현욱 목사	전북동노회	600,000	44	인월동광교회	조강희 목사	전북노회	150,000
11	꽃밭교회	박광식 목사	경기노회	400,000	28	영복교회	이충년 목사	경중노회	500,000	45	생명의빛교회	정인직 목사	전북동노회	150,000
12	중심교회	박경남 목사	경기노회	200,000	29	덕소제일교회	박만진 목사	경기노회	220,000	46	길교회	김경국 목사	전북노회	150,000
13	남광교회	최갑철 목사	전북노회	500,000	30	새목장교회	김만술 목사	서울남노회	150,000	47	송악권등교회	김요환 목사	경서노회	150,000
14	은혜로교회	이철영 목사	경중노회	150,000	31	안양중앙교회	김문욱 목사	서울남노회	150,000	48	반석교회	이원식 목사	서울동노회	200,000
15	온누리사랑교회	이해동 목사	경기노회	200,000	32	꿈꾸는교회	황호관 목사	경서노회	200,000	49	서현교회	최원오 목사	전북노회	250,000
16	월드비전교회	김선영 목사	서울남노회	200,000	33	예성교회	전기원 목사	경기노회	160,000	50	정읍소명교회	김상열 목사	전북중부노회	1,150,000
17	반석교회	이부교 목사	전북노회	300,000	34	더스토리교회	박동혁 목사	경기노회	160,000	51	금상교회	채영구 목사	전북동노회	200,000

입금 계좌

농협 301-0116-92128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국민 488401-01-22548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 ❖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일을 정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송금 후 교단본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영수증이 필요한 교회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노회 박병욱 장로를 부총회장 전형후보로 추천합니다.



꽃밭교회
박병욱 장로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경기노회는 박병욱 장로를
제106회 부총회장 전형후보로 추천하오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노회
박만진 목사

경기노회 노회원 일동은
총회 임원전형규정 제3장10조와 12조1항에 의거하여
박병욱 장로를 제106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노회장 : 박만진 목사
서기 : 전기원 목사